

## 와일드 코리아

아시아인들은 붉은 색을 상서로움과 경사로움의 상징으로 여긴다.

한국인들은 조금만 술을 마셔도 금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몸 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간장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Acetaldehyde 라는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음주 직후 얼굴이 붉게 변하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독재시절인 80년대, 정부에 대항하던 민주세력은 정보국의 도청으로 인해 무수한 이들이 체포, 구속되었다. 민주세력단체는 도청기를 색출하여 제거하려 했으나 이 경우 또 다른 도청기 설치를 야기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일부 과학자들은 비밀리에 도청에 혼란을 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도청기는 그대로 두되, 자신들이 나누던 밀담이 다른 내용으로 변하는 신기술이 그것이다. 이 개발 덕에 민주세력은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92년 정권을 쟁탈하는데 성공하였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이란 'A 동지가 오후 7시에 폭파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승리의 광장에 간다.'라는 말을 'B의 어머니가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평화시장에 간다.'로 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서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무능력자, 사회부적격자, 불민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나 근래에 들어 사회주의적 좌파라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진실은 중요하다. 그러나 믿고 싶은 것이 진실로 둔갑하기 쉽다. 진실은 고통이다.

한국의 현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성공에 자극을 받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축지법과 둔갑술 그리고 윤리교육이다. 이 기술이 성공할 경우 남한의 특수공작원이 순식간에 북한의 핵시설에 도달하여 핵미사일을 거대한 오이로 둔갑시킬 수 있게 된다.

만의 하나 남한의 특수공작원이 순식간에 남한에 되돌아와 대통령을 쥐로 바꾸어 버리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둔갑할 경우를 대비하여 윤리교육은 필요하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국시로 삼고 있다. 공산주의의 붉은 색은 혁명열사들의 붉은 피와 혁명을 의미하며 공산당의 영광 아래 모든 인민들이 대동단결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상징한다.

허구는 진실에 비해 논리적이다.